

- “검찰은 윤석열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수사에 신속하게 나서라”

오늘 우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갈수록 가관입니다.

본(인) 측근관련 비리 의혹, 부(인) 비리 혐의, 장(모) 비리, 이른바 본부장 비리의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처가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미부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땅을 투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보면,

마치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생각납니다.

가가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으려는 세상이 다시 오는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2만2천여 제곱미터(22,199 m²) 면적의 토지 개발 당시, 토지 수용을 통한 막대한 보상금 수령의 혜택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확인해 보니, 전체 개발 보상 토지 중 99.8%(국유지 0.2%)가 윤 후보 장모인 최은순 씨 및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입니다.

미리 땅을 사놓고 공영개발 포기시킨 뒤 이 땅을 수용하도록 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파트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입니다.

최은순 씨와 ‘이에스아이엔디’는 이 땅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해 800억 원대의 분양 매
출과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욱이 윤 후보 처가가 땅을 산 지역은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양평군
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고 정작 최 씨에게는 개발사업을 허용해주었습니다.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습니다.

LH의 사업은 불허한 양평군이 왜 윤 후보 장모인 최씨의 사업은 허가해줬는지 그 이유와 경위
도 분명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은 또 있습니다.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 후보 경선캠프에 참여한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윤 후보 본인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 까지 여주·양평·이천을 담당하던 여
주지청장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 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이 맞다면 엄연한 권력형 비리입니다.

따라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외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하나,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석열 후보 처가의 개입
여부

하나, 양평군이 공흥지구 개발 사업자로 이에스아이엔디를 선정하게 된 절차의 적절성

하나, 최은순씨가 셀프 개발을 통해 얻게 된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 협의회 기자회견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민주당 원외대표 010-8907-0525)

2021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